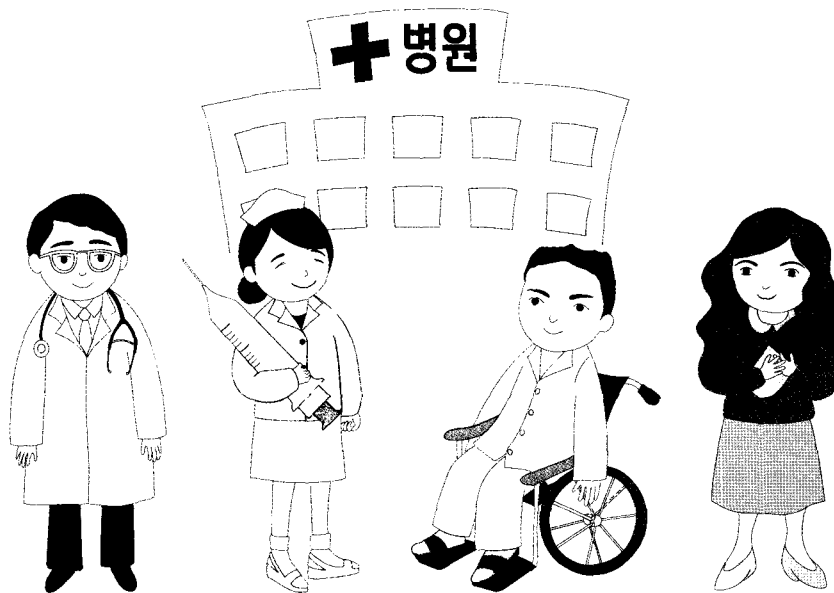


## 알아보는 건강 상식

# 2011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건강'에 대한 의미가 특별해지는 요즘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니 만큼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2011년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보자.



### ▶ 당뇨병치료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들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중고령자에 대한 당뇨병과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다. 당뇨병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로 올 7월부터 51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화로 1333억원의 재원이 사용된다.

고가의 항암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되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신장암에 급여가 허용된 표적항암제 벡사바의 경우 올 1월부터 간암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고,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도 2월부터 급여가 인정, 특수방사선 치료인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도 올 7월부터 급여화 된다. 또,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에 대해서도 올 7월부터 급여가 인정되고, 올 10월에는 장애인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에 대한 영양비 51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앞

서 올 1월부터 호흡기장애인 편의 증진과 지원을 위해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이 기존 1회 6개월에서 1회 1년(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도 제도권에 편입돼 포괄적인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종합병원 이상 6인실 비율 70%로 확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다인실(6인실) 병상 비율이 올해 1월부터 7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다인실 병상 비율 70%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한다. <table>

2011년 달라지는 제도(단위, 억원)			
지원내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해당질병환자 등	'11년중	연간3,319
-당뇨 치료제 등	당뇨병환자 등	'11년 7월	510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환자	'11년 10월	1,333
-폐계면활성제 급여	초미숙아 환자	'11년 1월	29
-양성자 치료기 급여	아동암환자	'11년 4월	71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암환자	'11년 1월	233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해당환자	'11년 2월	126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해당환자	'11년 7월	360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해당환자	'11년 7월	6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장루요루 환자	'11년 10월	51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40만원)	산모 등	'11년 4월	600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경우	'11년 1월	199
•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 (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11년 1월	추계중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 내 지원)	18세미만 청소년 산모	'11년 4월	6

자료 출처/매경헬스, 2011년 병원 방문시 이것만은 챙기자!